

요절복통
여래네 집
#32. 입장차이
스튜디오들

추위를 타지 않는 여래 아버지는 요즘 활동하기에 딱 좋다고 하고 추위를 많이 타는 여래 엄마는 날씨가 추워져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아유 추워,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가 다 망설여지네.

이리저리 내가 버리고 올게.

엄마를 위한 줄 아는 우리 아빠는 멋쟁이!

착한 아버님에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지요.

이깟 날씨가 뭐가 춥다고 그래.

시원하니 좋기만 하구만.

문득 김건모의 노래 '핑계'가 생각나네요.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하지만 말이 쉽지 역지사지가 어디 쉬운일인가요?

세상에 영희아빠는 매일 영희엄마따라 시장도 보고 설거지도 도맡아서 한다고 글세.

한마디로 완전히 공처가네. 공처가!

나를 위해 시장도 같이 가주고 설거지도 도맡아해주는 고마운 애처가 우리 남편.

이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나봅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아 사위가 처가에 자주 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가는 건 쯤대없는 일이라 하지요.

정모님, 별고 없으셨지요?

엄마, 우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나서방 왔네. 어서와.

오빠는 어디 갔어?

쫓겨있는 네 오빠, 또 처가에 갔지 뭐나.

무심코 뱀은 말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도 허다합니다.

아가, 내가 너무 빨리 걸지?

빨리 걷는 건 나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느리게 걸고 있는데...

입장이 다른 느낌도 달라지는 걸까요?

세탁소집 아들 철수 알지요? 애를 얼마나 버릇없이 키웠는지 어른들이 워리하면 지지 않고 꼬박꼬박 밀대꾸하지 뭐예요.

호호호 우리 여래는 얼마나 자기주장이 뚜렷한지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도 한마디도 밀리지 않고 애길 한다니까요.

이것도 입장차이의 한 예가 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마누라 죽으면 남편은 화장실가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시집식구들 몰래 조의금부터 헤아려본다.

이건 '입장차이'가 아닌 그냥 '입장'에서의 얘기잖습니까.

화제를 바꿔 요즘 취업이 힘들다는데 면접관이 하는 말에 토를 달아볼까요?

이 분야만큼은 자신있다. 최고라고 할만한 특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있으면 그걸로 밥먹고 살지 왜 이런 회사에서 셀러리맨으로 일하려고 하겠어.

대학시절 전공과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다릅니까?

흠, 취미가 독서와 영화감상? 너무 평범하지 않나?

그럼 당신은 대학에서 면접관과 나왔어?

그럼 당신의 광적인 취미를 가르쳐 주시지.

우리 회사에 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최근의 인력시장의 동향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무슨무슨 일이 있는지 부터 말해 줘야지.

아무래도 나는 비매출인 것 같네요.

다소 억지를 부린 감도 없지는 않지만 정말이지 입장의 차이는 큰것입니다.

작다.

크다.

웃긴다.

슬프다.

서로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오빠, 세상 참 빨갈지?

무슨 소리, 세상은 파랗지 않나?

입장차이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속성의 차이도 있지요.

아, 귀여워!

일 분에 몇바퀴나 도나 세어 봐야지.

양튼 오늘의 주제 내지는 요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합니다.

똑같은 크기로 나눴으니까 얼마, 아빠도 불만있죠?

.....

똑같이 한 조각씩 이리구?

불만있죠?

이런 또 미감때 다 됐잖아, 정말 마감이 너무 지주빨리 다가 오느것 같애.

우싱크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그렇게 생각 하든 안하든 법익고 합니다.

이주일의 화두

남의 흠을 들춰내며 찾아지도 말고 약점이 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써 자신을 잘 단속하여 살피나 가라 - 잡아함경 -

현지사 소개 그 일곱번째 주제 - 관음태교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를 원하시나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인류의 사표가 될 성현을 원하시나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로 꿈을 현실로!
영혼체 중심의 관음태교법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면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잘 생긴 딸을 낳게 되리니, 이들은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리라.’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

태교는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태교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녀의 미래 한 평생이 결정됩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관음태교법은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위신력으로 태아의 영혼체를 정화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 나라에 필요한 아이, 인류가 바라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새로운 차원의 영혼체 태교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지사 자재만현 큰스님의 깊은 삼매 중에 나타내시어 널리 보급하도록 특별히 당부하시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세계유일의 타락 태교법입니다.

사람이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선악의 행위는 모두 영혼체에 반영이 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영혼체의 청정도와 오염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악업(惡業)을 많이 지어 영혼체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면 가난과 고통의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선업(善業)을 많이 지어 영혼체가 깨끗하면 할수록 지혜와 복덕이 함께 하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태아의 영혼체는 인연 따라 부모를 찾아와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들어가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영혼체를 정화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태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태교의 알파오 오메가입니다. 기존태교법은 태아의 재능 개발이나 바른 품성의 함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태아의 영혼체에 있는 업장(業障)에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체 중심의 관음태교는 선진국의 어떤 훌륭한 태교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태교법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유아시절부터 과의 시키고 학원 보내고 대학에 입학시킬 때까지 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됩니까? 관음태교는 이러한 자녀의 미래교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전 젊은 여성들이 관음태교를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훌륭한 영혼체와 직접 인연을 맺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하면 태아의 영혼체에 심어진 나쁜 업을 소멸시켜 육체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주므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성현의 인품을 갖춘 아이, 총명하고 건강하고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아이, 단정한 용모를 가진 아이를 낳기 원하신다면 관음태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아이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합니다.

예비·영유아 부모를 위한 “관음태교” 제1기 수강생 모집요강

1. 모집인원 : 00명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기간 : 2010년 12월 5일(일) ~ 2011년 1월 9일(일) 6주간
4. 교육시간 : 일요일 3시간 강
5.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6. 원서접수 : 11월 1일부터 (전화접수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7. 강의 주제 및 강사 :

- 정 규 수 업 -

- ◆관세음보살 보문품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도현스님, 남전스님
-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한 위신력을 포함>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과학의 조화> -혜운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 특 강 -

- ◆관음태교사례<관음태교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 ◆교정원장 혜명스님 특강
- ◆덕산스님 특강<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윤운수(의학박사)
-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김병기(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원종식(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 ◆산모건강체조 -이영미(창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문 의 : 현지사 대전분원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